

특집 상품 정보

행운과 부를 불러주는 신비의 달마(達磨)

신비스런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건강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어...



달마란?

달마는 산스크리트어 'Bodhi dharma'를 소리말 적기한 보리달마를 줄여서 이른 것이다. 보디(bodhi)는 깨달음을 뜻하고 달마(dharma)는 법(法)을 의미한다. 중국 선 문헌에 근거하면 각 시대에 따라 달마의 모습이 부단하게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선종의 개화기 이후 중국 선종의 시조로서 달마라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인간 달마

달마는 확실히 보통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사람이었다. 때로는 제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다정한 스승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게 오로지 벽을 향해 정진하는 근절된 수행자의 모습으로 비친다. 달마는 당시 중국에 온 서역 승려들과 달리 신봉력을 부려 왕실의 귀의를 받거나 주위의 눈을 끌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이색적인 스승이었다.

달마는 재물이나 화재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부처님 귀처럼 기다리게 늘어진 귀를 틀어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있고 때부리고 있다. 이것은 인도에서 온 서역 승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는 벗겨진 대머리에 탑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두건을 쓰고 있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윤곽이 뚜렷한 얼굴을 하고 입을 모질게 다물고 있어서 무뎠음에 보이거나 눈이 살아있어서 그 뒷면에 무언가 꿈틀거리며 살아있

는 정신을 느끼게 해준다. 달마는 원래 신분이 왕자였던 만큼 매우 수려한 용모를 지녔다고 하는데 지금의 달마 얼굴과 연관된 재미있는 구전 이야기가 많이 전하고 있다.

달마와 그에 얽힌 일화

달마상의 주인공 달마는 어떤 인물인가. 달마는 중국 선종의 시조인 보리달마이다. 남인도 항지국의 셋째 왕자로서 일찍이 출가하여 남아시아에 불법을 배워 대승선을 체득하고, 스승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가서 선법을 펴고자 노력하던 선승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달마에 관한 전가들이 전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중 달마와 관련된 내용 몇 토막을 추려 소개하면 대강 이렇다.

달마가 중국에 도래한 연대는 대개 남북조시대인 양나라 무제 연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양 무제는 많은 절을 짓고 불상을 쌓고 많은 승려를 양성하였다. 달마가 인도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그를 궁궐로 초대하여 후하게 대접하였다. 아무런 무례는 지금껏 지기의 공덕이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참이라, 그 공덕이 과연 얼마나 큰가를 달마에게 물었다. 이에 달마는 거리낌없이 공덕이 조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의 칭송을 바라는 공덕은 이미 공덕이 아니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기대 밖의 대답에 왕은 달마의 무례함을 과잉하게 여겨 그를 은밀하게 죽인후 용이산에 묻어버렸다.



신비스런 기(氣)를 발산한다는 달마향로와 촛대

그런 일이 있을 후 송운이라는 사람이 서역에 사자로 갔다 돌아 오던 중 홍릉에서 달마를 만나게 되었다. 달마는 지렁이에 걸린 한

즉시 달마를 뒤따라가서 죽어도 목 명하였다. 후적대가 달마를 발견했을 때 그는 양자강가에 도착하여 강을 건너는 배를 기다리고

건강, 부, 사업번창, 불운재앙방지 수능시험 합격 기원을 위해 최적의 상품

죽을 때에 여에게 애었고, 발은 그냥 벗은 채 있었는데, 송운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달마는 "나는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가던 길을 재촉했다. 송운이 서둘러 돌아와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니 왕이 이상히 여겨 달마의 관을 확인해 보도록 명령했다. 관을 열어 보니 놀랄게도 시체는 간데 없고 정신 한 쉼만 뒹굴고 있었다고 한다. 달마가 아직도 살아 있음을 알게 된 왕은 군사를 불러

있었다. 군사들이 달려 잡으려 하자 달마는 강변에 놓인 갈대 한 가지를 꺾어 강물에 띄우고 몸을 훌쩍 날려 갈대를 타고 유유히 강을 건너 가버렸다. 그후 양자강을 건너 달마데사는 멀리 서쪽으로 들어갔다. 송산 소림사의 뒤쪽산에 있는 동굴에 9년 동안 묵언으로 면벽참선하였다고 한다.

달마의 사상적 배경

선종은 불입문자를 주장하여

경전에 의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불성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깊은 산간에 파묻혀 수행하는 이른바 좌선을 행한다. 달마가 송산 소림사에 들어가 면벽 9년의참선을 행하여 불성을 깨우친 사실은 선종의 교리와 수행의 진수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있어서 달마 그림은 선승뿐만 아니라 일반 신비를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그림으로 유행하였다. 그것은 인간 세상과 격리된 경지에서 인간의 본성을 찾으려 했던 달마의 사상과 행적이 신비들의 도가적 은밀사상과 연결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달마의 향로와 촛대

달마 향로와 촛대라함은 선이 다 선이란 스님들께서 깨달음을 말하지만 일반 신도에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병을 해소하는 것이다. 화려한 불사 가운데서 마음을 수행하며 어려운 경전의 지식이 없이도 자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 수행법이 달마향로와 촛대를 함께하는 선 수행이다. 이처럼 반드시 세상과 떨어져 깨달음을 얻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살속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정신수양을 하는것이다.

내면에는 부처를 찾는 독특한 선사상이 배어있다. 교묘와 마음의 경정함과 삼의 의무가 무엇이고 어떤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의

문,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것이다. 대한불교달마선양회에서는 좀더 많은 신도들에게 마음의 경정과 자야를 찾아주고 싶어 달마향로와 촛대를 만든 것이다.

기(氣)를 발산하는 신비한 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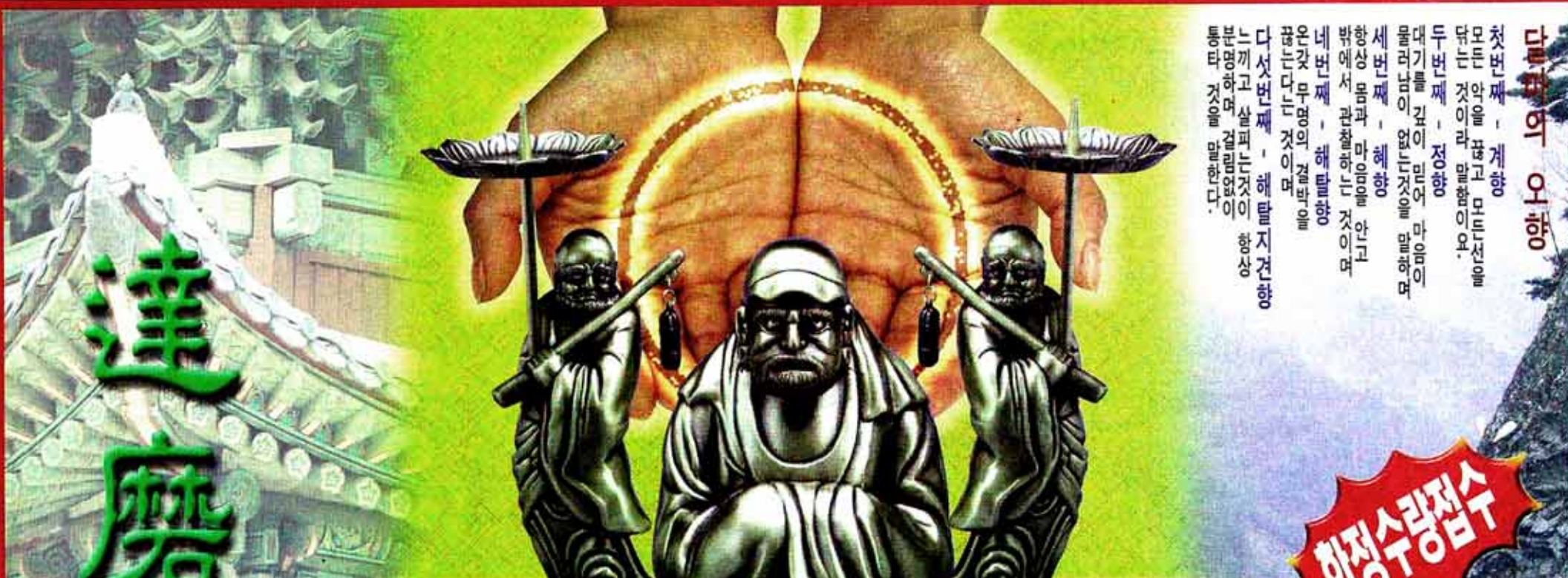
달마는 TV에서 방영,공명된 바에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과 부를 가져다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불교달마선양회에서는 신비의 기를 지닌 면벽달마향로와 청리달마 촛대를 작품으로 제작하여 논길을 끌고있다.

달마가 좌선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향로는 달마상 안쪽에 향을 피워 향이 달마상 입으로 나올수 있게하여 신비로운 감을 한층 더해준다. 달마상촛대는 달마선신으로 만들어 달마가 촛대를 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소장가치를 더해준다.

건강과 사업번창을 위해, 수험생들의 시험대비합격을 위해 불철주야 기원하시는 불자님들께 희귀의 작품이 될것이다.

달마상 향로는(16cm X 22cm)이며 달마상 촛대는(13cm X 29cm)로 240,000원에 1세트로 한정접수하니 서두르시는것이 좋을것이다. 주문방법은 전화접수후 전국대부분우편 발송으로 3일내 받아보실수 있다.

● 작품보증원: 대한불교달마선양회
● 접수 문의: 080-234-1300 (24시간 공휴일도 접수)



達磨

의장등록출원:30-2000-0000828

청리 달마선신상 촛대 (13cm X 29cm)

면벽 달마좌상 향로 (16cm X 22cm)

청리 달마선신상 촛대 (13cm X 29cm)

작품가격

달마상 향로/달마상 촛대 1Set
240,000원

40,000원 X 7개월 할부 됩니다.

※ 한정수량이므로 서둘러서 접수하십시오.

- 전화접수후 3일내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작품을 받아보신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 각종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BC, VISA, 국민, 외환...)

접수처: 대한불교달마선양회 (24시간 접수가능)

전국 **080-234-1300**

주소: 인천시 남구동 간석1동 900-141

이제 달마(達磨)와 함께 소원성취(所願成就) 하십시오.

면벽달마 향로와 청리달마 촛대는 삼재와 팔난을 막아주고 수맥을 차단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달마상 향로, 촛대는...

- 달마의 옷깃하나까지도 그대로 재현해 내 옮겨놓아 그 소장가치를 한층 더해줍니다.
- 특수합금 재료로 만들어 그 신비스러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가정과 사업번창, 수험생들의 합격기원을 원하시는 불자님들에게 더욱 값진 작품이 될것입니다.